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Honorifics Use and Interaction Scale for Preschoolers

1차원고접수: 2024.04.19. 수정원고접수: 2024.05.29. 최종게재결정: 2024.06.23.

최나야¹ · 정수지² · 최지수³¹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검무연구원²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심리학과, 박사후연구원³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Choi, Naya¹Jung, Suji²Choi, Jisu³^{1,3}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²Dep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아의 존댓말 사용 능력과 유아 존댓말에 대한 부모의 신념, 지도, 훈육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먼저 유아 존댓말 발달 및 부모 존댓말 지도 분야의 문헌 검토, 연구진 논의, 내용타당도 및 안면타당도 검토를 통해 예비 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17명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예비 문항에 응답하도록 한 후, 척도의 구성 요인을 확인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는 6개 요인(유아 존댓말 사용, 유아 인사말 사용, 유아 공손성, 부모 존댓말 신념, 부모 존댓말 지도, 부모 존댓말 훈육)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통계 분석을 통해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의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공인타당도,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척도는 이론적, 통계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추었기에 우리나라 유아의 화용론 발달을 평가할 뿐 아니라 부모의 존댓말 신념, 지도, 훈육과 유아의 존댓말 사용 간 관계를 밝히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 유아 존댓말, 부모 언어지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scale to measure South Korean preschoolers' ability to use honorifics and parents' belief, guidance, and discipline for preschoolers' use of honorifics and to verify its validity and reliability. We developed preliminary items through previous literature review, discussion among researchers, and verification of content validity and face validity. After 317 mothers of preschoolers answered the questionnaire about children's honorifics use and their guidance, we identified constructs of the scale and verifie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cale wit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and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Korean honorifics use and interaction scale for preschoolers consisted of 25 items under six constructs: preschoolers' use of honorifics, preschoolers' use of greetings, preschooler's politeness, parents' honorifics beliefs, parents' honorifics guidance, and parents' honorifics discipline. Second, we verified the 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concurrent validity of the scale. In conclusion, as the developed scale was verified to have theoretical and statistical validity and reliability, this scale can be used to evaluate South Korean preschoolers' pragmatic development and its relation with parents' honorifics beliefs, guidance, and discipline.

Keywords preschoolers' honorifics, parents' language guidance,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존댓말은 우리 말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존댓말의 사용은 사회적으로 요구

되는 바른 생활 습관으로 여겨진다. 존댓말이 웃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지키는 사회적인 관습과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이다(김우진, 2006; 엄세진, 정옥분, 2006; Ide, 1982). 웃어른께 존댓말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으면 비록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문장을 구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문화적으로 바르게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이 논문은 2023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to 정수지 (Jung, Suji)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심리학과, 박사후연구원 (Dep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E-mail. suj004@ucsd.edu

Copyright © 2024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따라서 우리나라의 아동에게 존댓말의 습득은 언어 발달 과업에서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이다. 말소리, 어휘, 문법을 익히는 데서 더 나아가 습득한 말을 상황에 맞추어 올바르게 사용하는 화용론(pragmatics) 발달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존댓말이다. 우리나라 유아는 보통 만 5세경 전후로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존댓말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데(이순형, 2000), 이 시기에 존댓말의 사용이 미흡하다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을 적절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존댓말의 획득과 사용은 한국어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근래에 들어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핵가족화에 따라 어린 아동이 존댓말이 쓰이는 일상적인 맥락을 접할 기회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성인이 웃어른께 바르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모델로서 솔선수범하기보다는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반말과 존댓말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김세원, 2010; 김정신, 정해은, 조희진, 2004).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우려하여 교육 기관에서 존댓말 사용에 대한 교육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하였다(임홍빈, 안명천, 장소원, 이은경, 2007). 존댓말은 우리 문화의 얼이 담겨 있는 언어적, 사회적 유산이다. 성인이 유아에게 존댓말을 어떻게 전수하고, 그에 따라 유아들이 존댓말을 어떻게 배워 쓰는지 밝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언어 발달의 고유한 측면을 담아내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존댓말 사용과 교육 관련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화하고자 한다.

유아의 존댓말 획득 정도를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측면까지 두루 살펴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아의 존댓말 획득을 돕기 위해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성인이 먼저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유아가 따라 하도록 유도한다(이귀옥, 1997). 가족들 간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부모가 존댓말을 사용하고 자녀의 존댓말 사용을 격려하는 것이 자녀의 존댓말 습득과 발화의 차이를 가져오기도 한다(Kim, 1997). 게다가 존댓말은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를 고려하는 언어 예절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사

회적 관계를 고려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이필영, 김정선, 문선희, 2013). 즉 유아의 존댓말 습득을 살펴보면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집중해야 한다.

유아가 존댓말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성인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성인에게 공손한 언어표현을 사용하는 유아의 능력은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 동·서양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영어권 국가와 일본에서 부모는 상호작용을 통해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thank you’, ‘please’, ‘-de kudasai’와 같은 공손한 언어표현을 익히도록 가르친다(Burdelski, 2010; Gleason, 1980).

또한 유아가 성인과 대화할 때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사회적 능력도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 미국, 이스라엘, 덴마크의 부모를 연구한 결과, 부모가 자녀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손한 태도를 갖추도록 교육하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Blum-kulka, 1990; Ladegaard, 2004).

이처럼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손한 언어 사용을 지도하는 모습은 여러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공손함을 지도하는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문화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Blum-kulka, 1990). 따라서 우리나라 부모가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존댓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아의 존댓말 발달에 도움을 주는 부모의 구체적인 요인과 이에 따른 유아의 존댓말 습득의 과정에 대해서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유아의 존댓말 사용과 부모 상호작용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부재 때문이기도 하다. 일부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존댓말에 대한 신념과 상호작용이 유아의 존댓말 사용과 연관이 있음을 밝혔으나(김명순, 강옥경, 임양미, 2008), 타당화를 거친 척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유아의 존댓말 사용 정도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유아의 존댓말 사용과 부모의 존댓말 관련 신념 및 상호작용의 세부적인 하위요인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밝히는 척도를 개발한다면, 우리나라 유아의 존댓말 습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 척도를 활용하여 유아의 존댓말 습득 정도를 파악하고, 존댓말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의 상호작용 방안에 대한 연구도 가능해질 것이다. 더 나아가, 세계 보편적인 언어발달 과정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어문화마다 차별화되는 특수성에 집중함으로써 아동의 언어발달을 둘러싼 더욱 본질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존댓말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자녀를 지도하고 훈육하는지를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구성하고자 하였다. 부모의 존댓말 상호작용과 더불어, 유아가 존댓말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다. 또한 존댓말을 사용하는 상황에서의 언어적, 비언어적인 측면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유아의 존댓말 사용과 동반되는 태도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자 하였다.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먼저 ‘유아의 존댓말 사용’에 대한 개념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정유진(2010)과 이순형의 연구(2000)는 유아의 존댓말 사용의 획득 순서를 제시하였다. 한국어의 존댓말에는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종결어미를 통해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있다. 존댓말은 그 유형에 따라 습득 시기에 차이가 있어 만 2세 후반이 되면 문장의 끝에 ‘-요’를 붙이는 높임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이순형, 2000). 반면에 주격 조사 ‘-께서’를 붙이는 존댓말은 만 3, 4세가 되어도 소수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만 5세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유아가 선어말어미를 붙이는 ‘-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박진이, 김민진,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체, 주체, 상대 높임법을 두루 포괄하여 존댓말 습득의 정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자 하였다.

유아의 존댓말을 평가하려면 ‘인사말의 사용’과 ‘공손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존댓말

체계에는 웃어른에게 공손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과 인사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생활습관 중 하나로 손윗사람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인사말의 사용’과 높임말을 적절히 사용하며 상황에 맞는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공손성’을 요구한다(안준희, 2016; 엄세진, 정옥분, 2006). 이를 보여주듯 우리나라에서는 어른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인사말 사용에 대한 교육을 일찍부터 시작한다(김명순 등, 2008; 박진이, 김민진, 2010). 이는 기본생활습관 중 ‘예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때와 장소에 맞는 언행과 인사법을 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엄세진, 정옥분,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존댓말 사용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크게 언어적 측면인 ‘존댓말 사용’ 항목뿐 아니라, 존댓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말의 사용’과 ‘공손성’의 항목을 추가하여 개념화하였다.

한편, 유아의 존댓말 발달과 관련된 부모의 태도 및 상호작용도 함께 측정하기 위해 이론적인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존댓말과 관련해서 부모가 어떤 신념을 지니고 있고, 그에 따라 실제적인 지도나 훈육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부모가 자녀의 존댓말 사용과 관련하여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Miller(1988)의 모델에 따르면, 부모의 신념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을 통해 자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부모의 문해 신념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달라지게 만들어 유아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친다(지연주, 최나야, 2012; 호수진, 2008). 부모가 자녀의 존댓말 사용이 중요하며, 존댓말 사용 규칙을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유아의 존댓말 사용 능력이 뛰어난 것이 확인되었다(김명순 등, 2008).

신념에 이어 고려해야 할 부분은 유아의 존댓말 사용에 관한 부모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유아의 언어발달을 돕는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으로 부모의 ‘지도’와 ‘훈육’을 꼽을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언어 사용에 대해 행하는 ‘지도’는 직접적인 지도와 간접적인 지도로 구분할 수 있다. 언어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알려주고 이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직접적 지도,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맥락을 제공하고 다양하게 말을 건넌으로써 유아가 우연히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간접적 지도라고 말한다(이지현, 마송희, 김수영, 정정희, 2014; 정수지, 최나야, 2020).

유아의 존댓말 습득에는 부모의 직접적인 지도가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모가 유아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법을 직접 보여주며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격려할 때 유아의 존댓말 습득의 출현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Kim, 1997). 게다가 유아의 존댓말 습득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먼저 존댓말을 사용하고 이를 자녀가 따라 하도록 말하는 직접적인 지도를 통해 새로운 존댓말의 습득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한다(이귀옥, 1997). 이러한 양상은 유아의 존댓말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에서만 아니라, 유아에게 언어를 지도할 때도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언어 사용에 대해 지도할 때 유아는 더 쉽고 빠르게 그와 관련된 언어를 습득하는 경향을 보인다(유흥식, 정성희, 2012; 이지현 등, 2014; 최나야, 정수정,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존댓말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를 척도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훈육’은 자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부모의 행동을 의미한다(이미진, 2013). 훈육에는 자녀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때 잘못되었음을 일깨우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훈육은 유아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 선행되고, 바르게 행동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점에서 지도와는 차이가 있다(양진희, 2015). 이를 존댓말 사용과 관련한 부모의 상호작용에 빚대어 본다면, 존댓말 사용과 관련한 훈육으로는 유아가 손윗사람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주의를 주고, 존댓말을 바르게 사용해야 함을 일깨워 주는 것이 해당된다.

한편, 존댓말의 사용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및 부모의 권위와 관련이 깊은 요인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위적 양육태도(authoritative parenting style)는 온정성, 수용, 논증을 지향하는 규제, 자율성의 격려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양육태도 유형이다(Baumrind, 1966). 많은 선행 연구는 부모의 권위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협력, 이타적 도덕 추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Robinson, Mandlco, Olsen, & Hart, 1995; Russell, Hart, Robinson, & Olsen, 2003). 이를 고려하면 권위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친사회적인 언어 사용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존댓말 습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척도가 부모의 권위적 양육태도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존댓말 사용과 관련한 상호작용으로 부모의 신념, 지도, 훈육이라는 이론적인 개념이 통계적으로도 요인화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하위요인으로 어떤 항목들이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언어적 측면에 해당하는 유아의 존댓말 사용과 더불어 사회적 측면에 해당하는 인사말의 사용과 공손성의 정도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의 구성요인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자녀의 존댓말 사용 정도를 잘 파악하고 자녀와 존댓말 상호작용을 충분히 경험한 부모의 응답

을 척도 개발과 타당화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김명순 등의 연구(2008) 결과에 따라, 존댓말 사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경험한 5세 이상 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설문지 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5 ~ 6세 미취학 자녀가 있는 어머니 317명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어머니가 응답한 유아, 어머니,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은 표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는 남아 150명(47.3%), 여아 167명(52.7%)으로 여아가 조금 더 많았고, 유아의 연령은 5세 213명(67.2%), 6세 104명(32.8%)로 5세가 과반을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연령대는 30대가 216명(75.5%), 40대가 65명(22.8%), 20대가 4명(1.4%), 50대가 1명(3%) 순으로 많았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181명(57.1%), 2, 3년제 대졸과 대학원졸(석사)이 각각 47명(14.8%), 고졸이 23명(7.3%),

표 1. 설문조사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n	%	
유아	성별	남자	150	47.3	
		여자	167	52.7	
	연령	5세	213	67.2	
		6세	104	32.8	
어머니	연령	20 ~ 29세	4	1.4	
		30 ~ 39세	216	75.5	
		40 ~ 49세	65	22.8	
		50 ~ 59세	1	.3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1	.3	
		고등학교 졸업	23	7.3	
		2, 3년제 대학교 졸업	47	14.8	
		4년제 대학교 졸업	181	57.1	
		대학원 졸업(석사)	47	14.8	
		대학원 졸업(박사)	18	5.7	
	가정	취업상태	맞벌이	185	58.4
			외벌이(아버지)	125	39.4
외벌이(어머니)			7	2.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7	2.2	
		200만 원대	10	3.2	
		300만 원대	62	19.6	
		400만 원대	53	16.7	
		500만 원대	49	15.5	
		600만 원대	54	17.0	
		700만 원대	29	9.1	
		800만 원대	26	8.2	
		900만 원대	8	2.5	
		1000만 원대	19	6.0	
지역		서울	111	35.0	
		경기·인천	87	27.4	
		충청	34	10.7	
		강원	18	5.7	
		경상	45	14.2	
	전라	19	6.0		
	제주	3	.9		
총계			317	100.0	

대학원졸(박사)가 18명(5.7%), 중졸 이하가 1명(.3%) 순이었다. 부모의 취업상태는 맞벌이가 185명(58.4%)으로 가장 많았고, 가구소득은 300만 원대가 62명(19.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300 ~ 600만 원대가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하였다.

2. 측정 도구

1)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

본 연구에서 활용된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는 예비 문항으로 구성된 1차 척도와 타당화 과정을 거쳐 개발된 최종 척도가 있다. 두 척도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서 문항 내용에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의 1차 척도는 5개의 구성요인과 51개 예비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유아 존댓말 사용(15문항)’, ‘유아 공손

성(7문항)’, ‘부모 존댓말 신념(9문항)’, ‘부모 존댓말 지도(12문항)’, ‘부모 존댓말 훈육(8문항)’을 포함하였다. 척도의 개발 과정에서 활용된 참고문헌의 목록과 참고 내용은 표 2와 같다.

다음으로 타당화 과정을 통해 개발된 최종적인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는 유아의 존댓말 능력과 부모의 존댓말 상호작용의 정도를 측정한다. 요인분석 및 타당화 과정을 거쳐 6개 구성요인과 25개 문항으로 구성된 최종 척도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구성요인은 ‘유아 존댓말 사용(4문항)’, ‘유아 인사말 사용(3문항)’, ‘유아 공손성(3문항)’, ‘부모 존댓말 신념(7문항)’, ‘부모 존댓말 지도(5문항)’, ‘부모 존댓말 훈육(3문항)’과 같다.

2) 부모 양육행동 척도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의 타당화 과정에서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와 부모의 권위적 양육태도 간 상관관계

표 2.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예비 척도)의 이론적 구성요인

도출된 구성요인	이론적 개념	대표 참고문헌 및 참고한 개념
1. 유아 존댓말 사용	• 조작적 정의: 유아가 일상에서 존댓말을 활용하는 정도 - 유아가 존댓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존댓말을 사용하는 정도 - 유아가 주체존대, 상대존대, 객체존대를 활용하는 정도	• 정유진(2010): ‘존댓말 사용 능력 검사 도구’ • 이순형(2000): 상대 높임, 존칭, 주체 높임의 획득 순서 및 획득 연령
2. 유아 공손성	• 조작적 정의: 유아가 존댓말을 사용할 때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정도 - 어른을 예우하는 인사법과 언행을 맥락에 맞게 구사	• 엄세진과 정옥분(2006):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하위요인 ‘예절’ • 안준희(2016):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는 공손성을 표현하는 언어적 장치임
3. 부모 존댓말 신념	• 조작적 정의: 부모가 유아기 자녀 존댓말 지도에 관해 가지고 있는 신념 - 유아 존댓말 지도의 필요성 인식 - 유아 존댓말 지도의 가치 인식 - 부모가 유아의 존댓말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관한 신념	• 김명순 등(2008): ‘존댓말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변인의 하위요인(‘유아의 존댓말 사용 및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환경적 요인이 유아의 존댓말 습득에 미치는 영향력’) • 지연주와 최나야(2012): ‘문해신념’, ‘그림책에 대한 인식’ 변인
4. 부모 존댓말 지도	• 조작적 정의: 유아의 존댓말 습득을 돕는 부모의 언어적 중재 - 존댓말의 의미, 형식, 사용법, 가치를 설명하는 부모의 설명 - 유아가 존댓말에 보이는 흥미에 대한 부모의 반응적인 태도 - 유아의 존댓말 수준에 맞춘 부모의 설명 - 민주적 과정을 통한 존댓말 사용 규칙 결정	• 이지현 등(2014): 유아 언어지도 방법 중 ‘직접적 지도’ • 유홍식과 정성희(2012): 어린이신문에 대한 부모의 중재유형(‘설명·토론형 중재’, ‘제한·지도형 중재’) • 이미진(2013): ‘부모역할수행 척도’의 ‘사회성 지도’ 하위요인 • 박성희와 방경숙(2013): ‘학령전기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 측정도구’의 ‘아동발달 촉진’ 하위요인 • 최나야와 정수정(2019): ‘부모-자녀 신문 상호작용 척도’의 ‘지도’ 하위요인
5. 부모 존댓말 훈육	• 조작적 정의: 존댓말 사용의 규칙을 가르치고 모범적인 존댓말 사용을 훈련하는 부모의 언어적 중재 - 유아의 잘못된 존댓말 사용 지적 - 모범적인 존댓말 사용법 설명 -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훈련	• 양진희(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의 ‘훈육적 지지’ 하위요인 • 이미진(2013): ‘부모역할수행 척도’의 ‘훈육’ 하위요인

를 분석하였다. 부모의 권위적 양육태도는 Robinson 등(1995)의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세 가지 하위요인(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양육행동) 중 권위적 양육행동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부모의 권위적 양육태도는 ‘나는 아이에게 왜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준다.’와 같은 2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응답자가 문항 내용에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사이로 응답하게 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권위가 있음을 의미한다. 권위적 양육태도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96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문헌을 검토하여 유아 존댓말 발달 및 부모의 존댓말 상호작용의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구성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을 마련하여 예비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5 ~ 6세 유아 자녀의 어머니 3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목적, 참여 방법, 설명문 및 동의서는 연구진 소속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2003/001-006)을 받은 후 연구가 진행되었다. 척도 개발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대상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척도의 이론적 구성요인 도출 및 예비 문항 개발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의 이론적 구성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을 검토하였다.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를 개발한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언어발달, 유아 언어지도, 존댓말 발달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여 유아 존댓말 발달 및 부모 존댓말 지도와 관련된 이론적 개념, 척도의 하위요인 및 문항들을 추출하였다. 둘째, 연구진 회의를 통해 선행 문헌으로부터 추출된 이론적 개념과 척도 하

위요인 및 문항들을 다시 검토하여 유형화 및 개념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셋째, 문헌 검토를 통해 도출된 이론적 구성요인을 대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별 문항을 보충하여 예비 문항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척도의 문항을 존댓말 척도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추가하거나 기존 척도에는 없었지만 새로 추가될 필요가 있는 문항의 경우 새롭게 개발하여 추가하였다. 넷째, 예비문항의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가족학 전공 대학원생들(석사과정생 1명, 박사과정생 1명)에게 제시하여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받았다.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을 수정, 삭제, 추가하고 언어적 표현도 다듬었다. 다섯째, 수정된 예비문항의 안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유아기 자녀가 있는 어머니 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 참여한 어머니에게 설문조사에 응답하도록 한 후, 이해가 되지 않은 문항이 있었는지, 수정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문항이 있었는지, 문장 표현이 어려운 문항이 있었는지 의견을 수렴하였다. 예비조사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해가 어려운 문항은 쉽고 간결한 표현으로 수정하고, 모호한 문항의 경우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1차 척도를 개발하여 척도 타당화를 위한 설문조사에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유아 존댓말 사용’, ‘유아 공손성’, ‘부모 존댓말 신념’, ‘부모 존댓말 지도’, ‘부모 존댓말 훈육’ 5개 구성요인과 5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다음으로 연구문제2에 답하기 위해 유아 어머니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진이 개발한 1차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자는 SNS, 육아 온라인 커뮤니티,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모집하였고, 설문조사 링크를 클릭하여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 응답자에게 보상으로 온라인 기프티콘이 제공되었다. 설문조사는 2022년 3월 6 ~ 9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 경기도 및 인천,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제주 지역을

모두 포함한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같은 응답을 두 차례 제출한 두 명의 데이터는 제외되었으며 최종적으로 317명의 응답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4. 자료 분석

어머니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응답 결과를 활용하여 척도의 구성요인을 확인하고 타당도 및 신뢰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구체적으로는 Mplus 버전 6.12를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시 최대우도추정과 사각회전을 활용하였다. IBM SPSS Statistics 버전 28.0.1.1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공인타당도를 분석하고 Cronbach's α 신뢰도 산출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의 구성요인 도출

1)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의 이론적 구성요인 도출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의 이론적 구성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아동 존댓말 발달 및 교육, 언어지도, 기본생활습관 지도 분야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존댓말을 연구한 선행 연구의 이론과 개념은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유아 존댓말 발달 및 지도를 잘 대표할 수 있도록 다시 개념화하였다. 또한 존댓말 연구가 아니더라도 부모의 언어지도, 문해지도, 기본생활습관 지도 분야의 연구에서 제시된 이론과 개념 중 존댓말 지도에 적용되는 이론과 개념도 검토하여 존댓말 지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도록 적용하였다.

이론적 구성요인은 문헌 검토를 통해 도출되었다. 이론적인 구성요인 도출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참고문

헌의 목록은 표 2와 같다. 먼저 부모의 존댓말 인식을 연구한 김명순 등(2008)과 부모의 문해신념을 연구한 지연주와 최나야의 연구(2012)를 검토하여 '부모 존댓말 신념'을 개념화하고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부모 존댓말 신념'은 부모가 유아기 자녀 존댓말 지도에 관해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고 정의하고, 세부적으로는 제시한 부모의 존댓말 지도 필요성, 가치, 영향력 인식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개념화하였다. 다음으로 유아 언어지도 원리를 제시한 이지현 등(2014)의 문헌, 부모-유아 상호작용을 다룬 유홍식과 정성희(2012), 이미진(2013), 박성희와 방경숙(2013), 최나야와 정수정의 연구(2019)를 검토하여 부모의 '존댓말 지도'를 개념화하고 예비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문헌의 내용을 종합하여 '존댓말 지도'는 유아의 존댓말 습득을 돕는 부모의 언어적 중재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세부적으로는 존댓말에 관한 설명, 부모의 반응적 태도, 유아의 수준을 고려한 설명, 민주적 과정을 통한 존댓말 사용 규칙 결정 과정을 포함하였다. 또한 부모의 훈육을 다룬 양진희(2015)와 이미진의 연구(2013)로부터 유아가 습득해야 하는 예절로서 존댓말 훈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개념화하고 예비 문항을 포함하였다. '존댓말 훈육'은 존댓말 사용의 규칙을 가르치고 모범적인 존댓말 사용을 훈련하는 부모의 언어적 중재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세부적으로는 유아의 잘못된 존댓말 사용을 지적하는 부모의 중재, 모범적인 존댓말 사용법 설명, 존댓말 사용의 훈련을 포함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부모 존댓말 신념, 지도, 훈육과 같은 구성요인으로 이루어진 척도 초안을 연구진이 검토한 결과, 부모 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유아의 존댓말 능력도 함께 간단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유아 존댓말 발달 분야의 연구를 검토하여 유아기 존댓말 사용 능력을 대표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존댓말 사용 능력 검사 도구를 개발한 정유진(2010)과 유아 존댓말 획득을 연구한 이순형의 연구(2000)를 종합하여, 일상에서의 유아 존댓말 사용 정도를 평가하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유아가 존댓말을 사용해야 하는 대표적인 상황에서

주체존대, 상대존대, 객체존대를 적절히 활용하는지 평가하도록 하였다. ‘유아의 존댓말 사용’ 구인만으로는 유아의 존댓말 사용에서 태도적 측면을 포함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유아 공손성’ 구인도 포함하였다. 유아가 존댓말 습득을 통해 공손성을 표현하는 법을 배운다는 안준희의 연구(2016) 결과를 바탕으로, 엄세진과 정옥분(2006)의 기본생활습득 척도의 ‘예절’ 구인을 참고하여 ‘유아 공손성’ 구인을 개발하였다. ‘유아 공손성’은 유아가 존댓말을 사용할 때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어른을 예우하는 인사법과 언행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유아 존댓말 사용’, ‘유아 공손성’ 구인을 포함한 1차 척도를 마련하였다.

문헌 검토를 통해 ‘유아 존댓말 사용’, ‘유아 공손성’, ‘부모 존댓말 신념’, ‘부모 존댓말 지도’, ‘부모 존댓말 훈육’ 구인과 예비 문항이 마련되었다. 1차 척도의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아동학 분야 전문가와 유아기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배부하여 의견을 취합하였다. 구인 및 문항 내용이 적절한지, 문항의 의미가 쉽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하였고, 전문가와 부모의 의견을 종합하여 문항 내용과 표현을 가다듬었다. 이렇게 수정한 51개 문항을 부모 대상 설문조사에 활용하였다.

2)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 요인 구조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ML 추정법을 사용한 적합도 비교를 통해 최종 요인 구조 및 문항을 결정하였다. 모형 적합도가 비교

적 우수한 8요인, 9요인, 10요인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형의 적합한 요인의 개수를 정하기 위해, 모형 적합도 지수와 AIC, BIC, SABIC를 함께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9요인 모형이 적합도 지수 기준을 충족하면서(RMSEA = .05, CFI = .94, TLI = .91) 내용 측면에서도 10요인 모형보다 개발한 척도의 요인 구조를 잘 반영하여 9요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아 인사말 사용’ 구인이 하나의 독립된 구인으로 구분되었다.

다음으로 9요인 모형의 요인들과 포함된 문항들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9개의 요인 중 3개 요인은 3개 미만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요인화될 수 없어서 포함된 6개 문항이 제외하였다. 요인부하량들 간 차이가 .2 이하일 경우 교차부하로 판단하여 문항 16개를 삭제하였다. 내용 측면에서 요인을 대표하지 못하는 2개의 문항과 다른 문항과 겹치는 2개의 문항을 삭제하였다. 최종적으로 6개 요인(유아 존댓말 사용, 유아 인사말 사용, 유아 공손성, 부모 존댓말 신념, 부모 존댓말 지도, 부모 존댓말 훈육)과 25개 문항이 척도에 포함되었다. 이는 이론적 구성요인이었던 ‘유아 존댓말 사용’, ‘유아 공손성’, ‘부모 존댓말 신념’, ‘부모 존댓말 지도’, ‘부모 존댓말 훈육’에 ‘유아 인사말 사용’이 추가된 결과이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산출한 최종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표 4와 같다.

3)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 모형의 적합성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 6요인 모형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모형	카이제곱	df	RMSEA (90% CI)	CFI	TLI	AIC	BIC	SABIC
8요인	1557.97	895	.05 (.04 ~ .05)	.92	.89	38460.89	40272.68	38743.89
9요인	1396.17	852	.05 (.04 ~ .05)	.94	.91	38385.09	40358.52	38693.34
10요인	1280.82	810	.04 (.04 ~ .05)	.95	.92	38353.74	40485.03	38686.64
적합도 기준			< .06	> .9	> .9			

확인적 요인분석에 활용된 6요인 구조모형은 그림 1과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RMSEA는 .06, CFI는 .92, TLI는 .91으로 모두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2.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1) 타당도 검증

(1) 집중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척도를 구성한 후 척도의 타당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먼저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에 포함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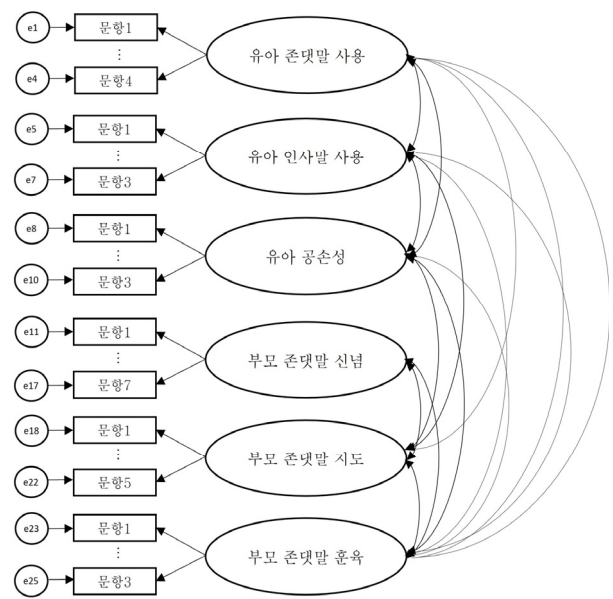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표 4.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내용	요인					
	1	2	3	4	5	8
요인1: 유아 존댓말 사용						
2 어른의 발을 밟았을 때 “죄송합니다(미안합니다).”라고 말한다	.64	.13	.04	.05	-.10	.03
7 어른이 이름을 물어볼 때 “제 이름은 00이에요.”라고 말한다	.60	.02	-.07	.06	.12	-.03
11 할아버지가 허리가 아플 때 “할아버지께서 허리가 아프세요(편찮으세요).”라고 말한다	.64	-.01	-.15	.06	.07	.09
12 부모님께 말씀을 전달할 때 “선생님께서 이걸 가져오라고 하셨어요.”라고 말한다	.55	-.01	-.00	.15	.05	.01
요인2: 유아 인사말 사용						
5 하원할 때 선생님께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한다	.19	.70	.10	.01	.01	-.00
16 집에 손님이 오시거나 나가실 때 현관까지 나와서 인사를 드린다	.09	.41	-.03	.04	-.09	.01
18 선생님을 만나면 인사를 드린다	-.08	.63	.14	.11	-.01	-.00
요인3: 유아 공손성						
13 부모님께 이야기할 때 공손한 말투로 이야기한다	.17	-.04	.07	.56	.06	-.03
14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야기할 때 공손한 말투로 이야기한다	.05	.18	-.05	.73	.02	.21
22 부모님과 웃어른께 공손한 태도로 말한다.	.22	.08	.05	.50	.00	.14
요인4: 부모 존댓말 신념						
23 아이가 존댓말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능력은 중요하다	.14	.10	.63	-.01	-.07	.10
25 나는 부모로서 아이가 존댓말을 익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4	.02	.63	.16	.19	-.04
26 아이는 존댓말을 부모한테 배운다	.02	-.04	.50	-.03	.19	-.04
27 나는 아이의 존댓말 교육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	.09	.02	.70	-.12	.09	.03
30 아이는 존댓말 사용을 통해 공손함을 배운다	-.01	.10	.73	.01	-.15	.10
34 나는 아이에게 말할 때 존댓말을 바르게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08	-.10	.54	.08	.15	-.05
35 나는 아이에게 어른에게는 존댓말을 꼭 써야 한다고 말한다	.11	.01	.54	-.01	.09	.18
요인5: 부모 존댓말 지도						
40 나는 존댓말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05	.10	-.09	-.04	.60	.22
41 나는 아이에게 다양한 존댓말을 알려준다	-.04	.13	.06	.06	.62	.10
45 나는 존댓말을 사용하는 법을 아이의 수준에 맞게 알려준다	-.06	.06	.02	.05	.66	.17
47 나는 아이와 함께 꼭 사용해야 하는 존댓말(규칙)을 정한다	.07	-.10	.06	.07	.51	.24
48 나는 아이와 올바른 존댓말 표현과 옳지 않은 표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03	-.07	.03	.05	.50	.28

문항 내용	요인					
	1	2	3	4	5	8
요인6: 부모 존댓말 훈육						
49 나는 아이에게 어른에게 존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예의 없는 것이라고 주의를 준다	-.07	.10	.16	.00	.02	.75
50 나는 아이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 알려준다	-.01	.15	.07	-.02	.25	.49
51 나는 아이가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상대 어른이 반말을 허용하더라도 꾸짖는다	.02	-.11	-.01	.03	.12	.58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RMSEA (90% CI)	CFI	TLI
6요인	558.71	260	.06(.05 ~ .07)	.92	.91
적합도 기준			< .06	> .9	> .9

표 6.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요인부하량

하위요인	문항 번호	B	S.E.	β
요인1: 유아 존댓말 사용	2	1.00	.00	.60
	7	1.10	.13	.66
	11	1.28	.14	.72
	12	1.33	.15	.74
요인2: 유아 인사말 사용	5	1.00	.00	.68
	16	.86	.10	.60
	18	1.12	.10	.84
요인3: 유아 공손성	13	1.00	.00	.68
	14	1.23	.11	.77
	22	1.22	.11	.83
요인4: 부모 존댓말 신념	23	1.00	.00	.76
	25	1.00	.07	.75
	26	.85	.08	.65
	27	1.16	.08	.81
	30	1.02	.08	.74
	34	.88	.07	.67
	35	1.06	.08	.75
	40	1.00	.00	.73
요인5: 부모 존댓말 지도	41	.95	.08	.71
	45	1.01	.08	.73
	47	1.10	.09	.72
	48	1.04	.09	.72
요인6: 부모 존댓말 훈육	49	1.00	.00	.81
	50	.95	.07	.77
	51	.77	.08	.58

문항들이 구성요인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중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을 산출하였다 (표 6 참조). 존댓말 척도 모형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모두 .5 이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구성요인들이 집

중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 판별타당도

다음으로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의 각 하위요인이 서로 구별되는 다른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판별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1을 포함하는지 확인하였다. 산출된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신뢰구간은 표 7과 같다.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신뢰구간 수치는 [.06, .22]에서 [.33, .55] 사이에 분포하여 모두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척도의 모든 하위요인의 판별타당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3) 공인타당도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한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가 타당도를 확보한 기존

척도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개발한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의 하위요인과 Robinson 등(1995)의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권위적 양육태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유아 존댓말 사용($r = .32, p < .001$), 유아 인사말 사용($r = .55, p < .001$), 유아 공손성($r = .37, p < .001$), 부모 존댓말 신념($r = .64, p < .001$), 부모 존댓말 지도($r = .46, p < .001$), 부모 존댓말 훈육($r = .37, p < .001$)은 각각 권위적 양육태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표 7.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신뢰구간

	상관계수	S.E.	신뢰구간($0 \pm 2 \times S.E.$)
요인2, 1	.148	.037	.07 ~ .22
요인3, 1	.271	.043	.19 ~ .36
요인3, 2	.242	.039	.16 ~ .32
요인4, 1	.156	.033	.09 ~ .22
요인4, 2	.306	.043	.22 ~ .39
요인4, 3	.217	.034	.15 ~ .29
요인5, 1	.19	.036	.12 ~ .26
요인5, 2	.162	.036	.09 ~ .23
요인5, 3	.206	.036	.13 ~ .28
요인5, 4	.297	.04	.22 ~ .38
요인6, 1	.141	.039	.06 ~ .22
요인6, 2	.231	.047	.14 ~ .33
요인6, 3	.198	.04	.12 ~ .28
요인6, 4	.373	.049	.28 ~ .47
요인6, 5	.441	.054	.33 ~ .55

표 8.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 하위변인과 권위적 양육태도 간 상관관계

($N = 317$)

	1	2	3	4	5	6	7
1. 권위적 양육태도	1.00						
2. 유아 존댓말 사용	.32***	1.00					
3. 유아 인사말 사용	.55***	.33***	1.00				
4. 유아 공손성	.37***	.58***	.45***	1.00			
5. 부모 존댓말 신념	.64***	.34***	.55***	.43***	1.00		
6. 부모 존댓말 지도	.46***	.36***	.27***	.40***	.56***	1.00	
7. 부모 존댓말 훈육	.37***	.22***	.27***	.29***	.52***	.63***	1.00
<i>M</i>	3.87	3.31	3.99	3.59	3.86	3.45	3.41
<i>SD</i>	.60	.81	.77	.80	.71	.77	.87
왜도	-.24	-.07	-.62	-.46	-.50	-.42	-.48
첨도	.04	-.22	-.11	.13	-.19	.45	.16

*** $p < .001$.

2) 신뢰도 검증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선정된 문항들의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92로 높은 수준이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유아 존댓말 사용은 .77, 유아 인사말 사용은 .73, 유아 공손성은 .80, 부모 존댓말 신념은 .89, 부모 존댓말 지도는 .85, 부모 존댓말 훈육은 .76으로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존댓말 능력과 부모의 존댓말 신념 및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였다.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유아의 존댓말 발달과 부모의 존댓말 지도를 구성하는 이론적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각 구성요인을 대표하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척도는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아 존댓말 사용', '유아 인사말 사용', '유아 공손성', '부모 존댓말 신념', '부모 존댓말 지도', '부모 존댓말 훈육'의 6개 요인과 2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한 결과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를 6개 하위요인으로 개념화하였다. 문헌 검토를 통해 이론적 구성요인을 개념화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아 존댓말 사용', '유아 인사말 사용', '유아 공손성', '부모 존댓말 신념', '부모 존댓말 지도', '부모 존댓말 훈육'을 척도의 구성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존댓말 발달 및 지도 분야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이론적 개념을 어머니 응답을 분석한 요인분석 결과가 뒷받침함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유아 존댓말 사용' 요인은 유아 존댓말 획득을 연구

한 선행 연구가 제시한 존댓말 평가 요소를 포함한다. 선행 연구는 존댓말 사용이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정확한 언어적 형태를 사용하여 말하는 의사소통 능력으로 정의하며(박진이, 김민진, 2010), 유아 존댓말 평가 시 일상생활에서 유아가 존댓말을 사용하는 맥락과 다양한 유아 존댓말의 형태를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김명순 등, 2008; 박진이, 김민진, 2010; 정유진, 김민진, 2011). 본 연구는 유아의 발화를 토대로 유아 존댓말 획득 수준을 평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존댓말 사용 맥락과 존댓말의 다양한 문법적 형태를 동시에 고려한 부모 응답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즉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는 유아의 언어 사용이 대화가 발생하는 맥락과 상대방의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 연구의 주장과 맥을 함께 하면서(Hoff, 2010), 상대 존대법, 객체 존대법, 주체 존대법과 같은 문법적 요소가 유아 존댓말의 발달 이정표임을 밝힌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박진이, 김민진, 2010; 이순형, 2000). 이처럼 본 연구는 이러한 유아의 존댓말 사용이 문법적, 화용론적 층위를 걸쳐 복잡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안준희, 2016). 더 나아가 이러한 유아의 존댓말 사용이 부모가 타당화된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에 응답함으로써 측정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는 '유아 인사말 사용'이 하나의 구성요인으로 요인화됨을 밝혀, 인사말 사용이 유아의 존댓말 습득의 중요한 맥락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서 '유아 인사말 사용' 하위요인에 속한 문항들은 이론적 구성요인을 도출한 결과 '유아 존댓말 사용', '유아 공손성' 구인에 포함되었지만,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하나의 독립적인 구성요인으로 요인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존댓말 사용에서 인사말 사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김명순 등, 2008), 우리나라 아동은 영유아기에 인사말 사용과 같은 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엄세진, 정옥분, 2006; 이순형, 2000), 우리나라 어머니는 유아에게 일찍부터 어른을 만났을 때 인사말을 강조하여 교육한다는(박진이, 김민진, 2010) 선행 연구의 주장과 일치한다. 김명순 등

(2008)은 우리나라 유아의 존댓말 사용 정도가 비교적 높고 특히 인사말과 관련된 존댓말 사용 정도가 높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유아가 인사말 중심의 예절 교육을 받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인사말이 유아가 익혀야 할 예절 중 한 가지라는 주장에서 더 나아가, 존댓말을 포함한 인사말 발달이란 공손성과 분리되는 하나의 특수한 하위영역임을 밝혔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본 연구는 유아의 인사말 사용이 우리나라 유아의 존댓말 사용의 중요한 한 영역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존댓말 사용의 언어적 측면뿐 아니라 존댓말 사용에서 중요한 태도적인 측면(엄세진, 정옥분, 2006)인 ‘유아 공손성’이라는 구성요인을 포함하여 요인화하였다. 공손성이 우리나라 존댓말 사용의 한 측면이라는 점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었다(안준희, 2016; Brown, 2015). 선행 연구에 따르면 유아는 존댓말 습득 과정에서 존댓말이라는 언어적 표현을 습득할 뿐 아니라, 성인과와의 관계에서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사회적 능력을 함께 습득한다(이필영 등, 2013). 그러나 지금까지 유아의 공손성은 기본생활습관의 한 측면으로만 평가되어(엄세진, 정옥분, 2006), 존댓말 사용능력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 요인분석을 통해 유아의 공손성을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의 구성요인으로 포함함으로써 성인과와의 관계에서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유아의 능력 또한 유아 존댓말 사용능력의 하나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한 결과, 부모의 존댓말 상호작용 유형을 신념, 지도, 훈육 세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동안 선행 연구는 부모가 존댓말 지도의 중요성에 대해 어떠한 신념을 가졌는지가 유아의 존댓말 획득 정도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김명순 등, 2008; Kim, 1997). 이러한 연구는 부모의 인식 및 신념이 부모와 유아 간 상호작용 및 양육행동을 통해 드러난다고 언급하였지만, 이러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기술하는 데에는 부족하였다(정유진, 김민진, 2011). 본

연구는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 개발 과정을 통해 부모의 존댓말 지도 방식이 세부적으로 존댓말 지도와 존댓말 훈육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의 존댓말 교육을 평가하는 세부적인 지표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의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공인타당도와 신뢰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개 요인과 25개 문항이 척도가 포함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결정된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의 6요인 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Robinson 등(1995)의 권위적 양육태도와 상관계 분석을 통해 공인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척도의 각 하위요인은 높은 수준의 신뢰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통계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화되지 않은 척도를 활용하여 유아 존댓말 및 상호작용을 개념화한 선행 연구와 차별화된다.

통계적인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척도의 개발은 유아 존댓말 연구 분야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유아 존댓말을 연구한 선행 연구는 척도의 부재로 인해 각 연구자가 마련한 서로 다른 척도를 활용하여 유아 존댓말 능력과 부모의 인식을 측정하였다(김명순 등, 2008; 정유진, 김민진, 2011). 이로 인해 각 연구가 존댓말 능력 및 부모의 인식을 다르게 정의하고 측정하였고, 선행 연구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를 후속 연구에서 활용한다면, 부모의 존댓말 신념, 지도, 훈육이 유아의 존댓말 사용과 관계가 있는지 분석할 뿐 아니라, 여러 연구 결과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논의한다면, 부모가 유아의 존댓말 사용을 지도하는 상호작용과 훈육하는 상호작용 중 어떤 상호작용을 택하면 좋을지, 서로 다른 연구에서 그 효과 크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 말과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유아의 존댓말 사용과 부모의 존댓말 지도 방식을 평가하는 도구를 마련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존댓말 사용능력을 문법 및 어휘발달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대화 맥락을 고려하는 의사소통 능력 발달과 예절을 익히는 화용론 발달의 차원에서 함께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부모의 존댓말 신념 및 존댓말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유형을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 및 타당화한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는 부모의 존댓말 신념, 지도, 훈육이 유아 존댓말 발달을 예측하는지 검증하는 후속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의 결과는 한국 아동의 존댓말 발달 및 부모의 지도 방식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와 유아 간 언어적 상호작용이 유아의 존댓말 획득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나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에는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 본 척도를 활용한 변인 간 연구를 확인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인과관계를 담보하지 못한다. 따라서 부모-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존댓말 획득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유아 존댓말 사용 및 상호작용 척도를 활용해 얻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실험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동일한 표본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모형적합성 및 구성타당도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명순, 강옥경, 임양미 (2008). 유아의 존댓말 사용과 어머니의 인식 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8(5), 273-293.
- 김세원 (2010). 초등학교 높임법 사용 실태 분석을 통한 지도 방안 연구. *어문학교육*, 40, 5-31.
- 김우진 (2006). 중국 카작족 존댓말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비교문화연구*, 12(2), 5-56.
- 김정신, 정해은, 조희진 (2004). *유아예절교육*. 서울: 교문사.
- 박성희, 방경숙 (2013). 학령전기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43(1), 59-68.
- 박진이, 김민진 (2010). 만 3, 4, 5세 유아의 존댓말 습득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31(6), 153-166.
- 안준희 (2016). 한국어 공손성의 언어사회화 관습 연구. *사회언어학*, 24(1), 175-211.
<http://doi.org/10.14353/sjk.2016.24.1.07>
- 양진희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9(5), 419-447.
- 엄세진, 정옥분 (2006). 초등학교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13(2), 55-76.
- 유홍식, 정성희 (2012). 어린이신문에 대한 학부모의 중재 유형과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6(1), 418-440.
- 이귀옥 (1997). 유아의 언어적 특징과 교수법: 존대법 습득 현황 조사. *언어연구*, 1, 23-36.
- 이미진 (2013). 부모역할수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기 부모용. *교육학연구*, 51(4), 155-184.
- 이순형 (2000). 한국 아동의 초기에 획득한 문법적 형태소의 종류 및 획득 시기. *아동학회지*, 21(4), 51-68.
- 이지현, 마송희, 김수영, 정정희 (2014). 영유아를 위한 언어교육. 경기도: 공동체.
- 이필영, 김정선, 문선희 (2013). 아동의 높임 표현 발달에 관한 종적 연구-31개월~4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어 의미학*, 40, 323-356.
- 임흥빈, 안명천, 장소원, 이은경 (2007). *바른 국어 생활과 문법*. 서울: 한국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정수지, 최나야 (2020).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3), 429-445.
<http://dx.doi.org/10.6115/fer.2020.031>
- 정유진 (2010). 그림책 읽기 후 역할극 활동이 유아의 존댓말 학습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진, 김민진 (2011). 그림책 읽기 후 역할극 활동이 유아의 존댓말 학습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2), 21-42.
- 지연주, 최나야 (2012). 교사와 어머니의 문해신념, 그림책에 대한 인식 및 읽기활동 빈도가 유아와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6),

- 5-28.
- 최나야, 정수정 (2019). 초등학생을 위한 가정 신문 활용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2), 225-241.
<https://doi.org/10.6115/fer.2019.016>
- 호수진 (2008). 어머니의 문해신념 및 가정문화환경이 만 2세
영아의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Baumrind, D. (1966). Effects of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on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37(4), 887-907.
<https://doi.org/10.2307/1126611>
- Blum-Kulka, S. (1990). You don't touch lettuce with your
fingers:: Parental politeness in family discourse.
Journal of Pragmatics, 14(2), 259-288.
- Brown, L. (2015). Revisiting 'polite'-yo and 'deferential'-
supnita speech style shifting in Korean from the view
point of indexicality. *Journal of Pragmatics*, 79, 43-59.
<https://doi.org/10.1016/j.pragma.2015.01.009>
- Burdelski, M. (2010). Socializing politeness routines: Action,
other-orientation, and embodiment in a Japanese
preschool. *Journal of Pragmatics*, 42(6), 1606-1621.
<https://doi.org/10.1016/j.pragma.2009.11.007>
- Gleason, J. B. (1980). The Acquisition of Social Speech:
Routines and Politeness Formulas. In H. Giles, W. P.
Robinson, & P. M. Smith (Eds.), *Language* (pp. 21-27).
Oxford: Pergamon Press.
- Hoff, E. (2010). Context effects on young children's language
use: The influence of conversational setting and partner.
First Language, 30(3-4), 461-472.
<https://doi.org/10.1177/0142723710370525>
- Ide, S. (1982). Japanese sociolinguistics politeness and wom-
en's language. *Lingua*, 57(2-4), 357-385.
[https://doi.org/10.1016/0024-3841\(82\)90009-2](https://doi.org/10.1016/0024-3841(82)90009-2)
- Kim, Y. J. (1997). The acquisition of Korea. In D. Slobin
(Ed.), *The cross-linguistic study of language acquisition*
(Vol. 4, pp. 335-44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adegaard, H. J. (2004). Politeness in young children's
speech: Context, peer group influence and pragmatic
competence. *Journal of Pragmatics*, 36(11), 2003-2022.
<https://doi.org/10.1016/j.pragma.2003.11.008>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
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2), 259-285.
<https://doi.org/10.2307/1130311>
- Robinson, C. C., Mandlco, B., Olsen, S. F., & Hart, C.
H. (1995).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Psychological Reports, 77(3), 819-830.
<https://doi.org/10.2466/pr0.1995.77.3.819>
- Russell, A., Hart, C., Robinson, C., & Olsen, S. (2003).
Children's sociable and aggressive behaviour with
peers: A comparison of the US and Australia, and con-
tributions of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1),
74-86.
<https://doi.org/10.1080/01650250244000038>